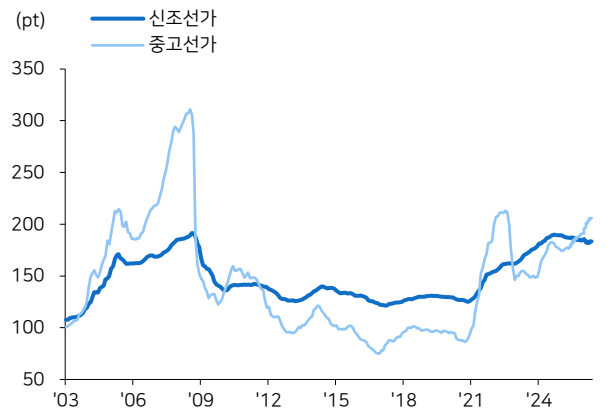
2026. 5. 6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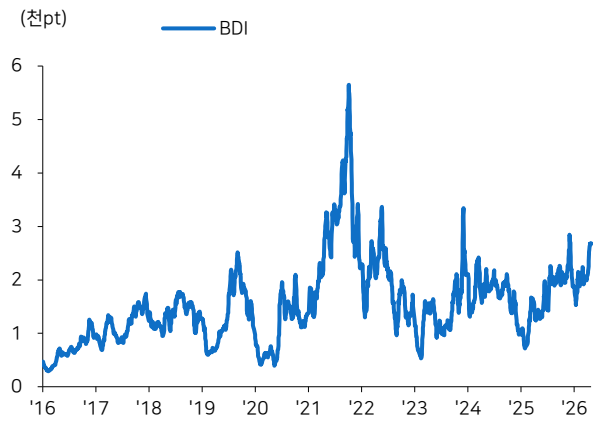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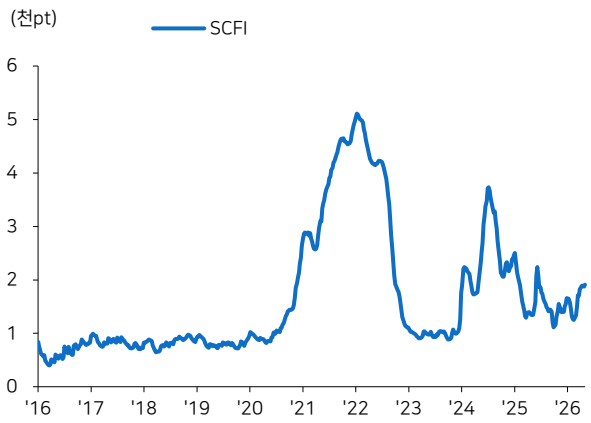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09.0달러 (+5.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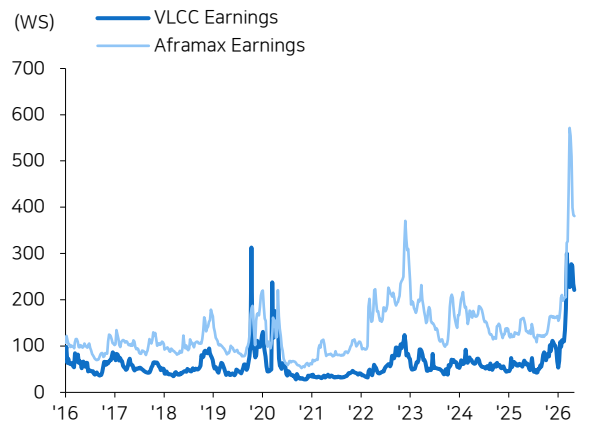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30.0p (+44.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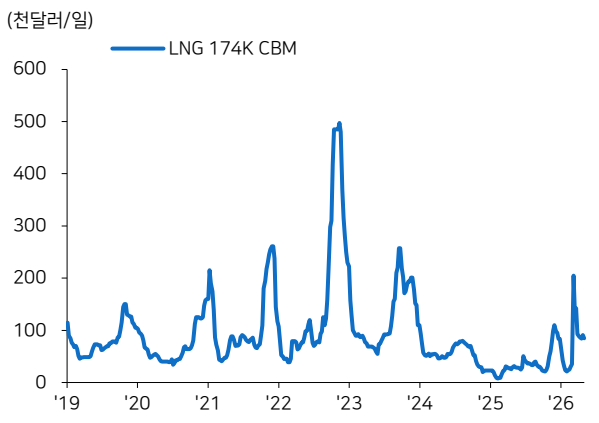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11.4(+36.1 WoW)



VLCC Spot Rate 220.8WS (-13.3p WoW)



LNG Spot 운임 85.0천달러 (-6.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295 조 대미투자 첫발...1 호 루이지애나 LNG '낙점' (한국경제) https://zrr.kr/cSBax5

미국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약 295조 원 규모의 '한 · 미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는 제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됨.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삼일PwC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컨소시엄을 자문사로 선정했으며, 후보군으로는 사업비 약 330억 달러 규모의 CP2 LNG 프로젝트와 우드사이드 LNG 프로젝트 등이 거론된다고 전해짐. 정부는 단순 재무적 투자를 넘어 한국 기업이 터미널 시공을 맡고 국산 철강 · 기자재를 공급하는 '팀코리아' 방식의 참여를 추진 중이며, 이번 1호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원전(SMR) 및 조선업 분야로 대미 투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짐.

산업장관 북미행... 60 조 잠수함 수주·대미 투자 협의 총력 (TV 조선) https://zrr.kr/MIMdD8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과 대미 투자 협의를 위해 캐나다와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보도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및 팀 호지슨 에너지 · 천연자원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간 산업 ·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김 장관은 이어 6일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1호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투자 현안 조율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알려짐.

Samsung scoops $330 million prize for Malaysia's first LNG FSRU project (Upstream) https://zrr.kr/bOVpV8

삼성중공업이 말레이시아 해운사 MISC로부터 약 4,848억 원(3억 2,814만 달러) 규모의 LNG-FSRU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설비는 말레이시아 Petronas Gas가 루뭇 지역에 개발 중인 제3 LNG 수입 터미널(RGT-3)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며, 삼성중공업은 이를 2029년 2월까지 인도한다고 전해짐. MISC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FSRU 시장에 처음 진출하며, 2029년 2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는 RGT-3 터미널은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의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약 3.5GW 규모의 발전 용량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한다고 알려짐.

QatarEnergy pushes out more LNG carriers for charter as Gulf lockdown rolls on (TradeWinds) https://zrr.kr/KVEVnI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QatarEnergy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LNG 생산 중단 여파로 자사 보유 선박들을 대거 단기 용선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보도됨. QatarEnergy의 마케팅 부문은 최근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해 LNG 생산을 멈춘 뒤, 활용이 어려워진 Q-Flex 및 최신 174,000cbm급 LNG 운반선 등 10여 척 이상의 선박을 대서양과 말라카 해협 인근에서 5~6개월 기간의 전선 계약 매물로 내놓았다고 전해짐.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 약 15척의 LNG 운반선이 고립된 가운데, 카타르에너지는 일부 고객사들에게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을 6월 중순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했으며, 이처럼 시장에 풀린 대규모 유휴 선복량이 현재 하루 9만~10만 달러 선인 용선료에 하락 압력을 가할 전망으로 알려짐.

South Korean shipbuilder Hanwha Ocean wins order for three VLACs (TradeWinds) https://zrr.kr/2BPNiH

한화오션이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총 5,074억 원(약 3억 4,46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93,000㎥급으로 척당 가격은 약 1억 1,490만 달러 수준이며, 오는 2030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시장에서는 이번 발주처를 영국 소재의 Zodiac Maritime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총 10척의 VLAC 수주 잔량을 확보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2026년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할 전망으로 알려짐.

Alternative fuel confidence returning to some sectors, DNV says (TradeWinds) https://zrr.kr/Jw8xf2

DNV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안 연료 추진선 발주량이 총 38척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49척) 대비 감소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의미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됨. 연료별로는 LNG가 단기 탈탄소화의 핵심 역할로서 여전히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4월 한 달간 LPG 추진선 14척과 암모니아 추진 벌크선 4척의 발주가 이어지며 선종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고 전해짐. 올해 1~4월 누계 실적은 전년 대비 다소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DNV에 따르면 암모니아 추진선과 같은 초기 단계 프로젝트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투자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며 향후 발주 패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